[교회 표어] ·은혜충만 · 진리충만
[교회 3대 목표]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성도생활의 목표]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진리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각 나라별 선교회

구 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산본,포일,부곡	수원,영통,진위,전원,동탄,안중,평택,용인,남양,율전,전주효자	안산,시화,시흥,인천,부천,부평,영종도	과천,판교,강남,구리,광주	광명,영등포,원주,천안	일산, 김포, 장유,전주평화	수원,양주,서산,당진	수원,대구,세종
연 락 처	T:031-448-1793 T:031-443-3731~2 (구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T:031-487-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콰이어							

교회학교 중·고등 학생 <자율학습 비전스쿨 : 온라인 ZOOM 독서실>

①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학생 모집

▶대 상 : 자율학습을 원하는 우리교회 중 · 고등부 학생 누구나
▶장 소 : 각자 방 또는 독서실에서 ZOOM 온라인 모임 링크로 접속
▶방 법 : 멘토 봉사자와 온라인 ZOOM 공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한다.
입시 · 신앙 상담, 모르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멘토에게 물어볼 수 있다.
▶일 시 : 평일- 오후 7시~10시 / 3시간, 수요일- 9시~11시 / 2시간 (이후 12시까지 자율학습 가능)
▶모집기간 : 상시 모집(신청자에게 줌링크 개별공지)
▶문 의 : '자율학습 비전스쿨 온라인 ZOOM독서실' 담당자(☎010-5395-0939, 010-9175-2356)
▶신청방법 : 아래 QR코드 접속 후 신청 또는 링크 접속(교회 홈페이지)후 신청 활용

②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봉사자 모집

▶대 상 : 위와 같이 중 · 고등부 학생들의 자율학습 지도가 가능한 성도님
▶신청방법 : 위와 동일한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신청방법
QR 코드 :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 031-443-3731~2, 446-9184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 031-906-3731
수원 : 수원시팔달구장다리로314번길3	T. 031-225-3731, 234-3732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 031-497-3732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 031-486-3731~2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 031-205-3732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 02-502-3731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 031-567-3731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 031-318-3731~2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 031-422-9200
광명 : 광명시 하안로 254(하안동)	T. 02-894-3731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 031-298-3739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 032-507-3731~2	**전원(수양관,본관)**	T. 031-227-5992~3, 227-3739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 031-462-3731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 031-985-3731~2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 031-716-3743, 716-7832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 031-662-3731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 02-2632-3731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 031-395-8227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 041-555-3731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 032-469-3742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 063-225-3731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 032-652-3731~2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 031-863-3731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 033-764-3735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 02-459-3731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 055-312-3731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 031-337-0688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 032-751-3731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 042-471-3736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 031-763-3720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 031-355-3729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 053-522-3731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 041-667-3731	**율전** :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 55 (천천동)	T. 031-271-3731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 031-8015-3731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 041-353-3731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 044-862-3732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 063-239-1004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 033-463-1312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 054-772-7867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 041-534-3731~2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 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 031-662-3731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 063-351-7518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 055-752-6675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 041-533-3731

은혜와 진리소식

2023년 6월 18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31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서리집사와 청년봉사선교회의 귀중한 직분을 주시고 충만한 사명감으로 헌신 봉사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장수빈 -

할렐루야! 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중심 교회중심의 신앙생활에 두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오늘 저 천국과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을 섬기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가정은 할머니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친척의 전도를 통해 저와 동생들은 유치부 때부터 은혜와진리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 주일성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유년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혼의 구원을 받은 감사함과 그 감격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교훈해 주신 말씀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어린 마음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아 천국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청년이 되자 교회학교에서 하던 여러 가지 봉사에 대하여 회의감이 찾아왔고 저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항상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즐겁게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어떻게 하면 나도 항상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하면서 몹시 부러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태복음 22:37)는 말씀이 저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도 크고 깊은 감동과 감격이 없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원인을 파악했지만 철저하게 이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제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청년봉사선교회에서 '청년구역장' 직분을 권면 받았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여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뜨겁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 '어떻게 하면 복음전파를 삶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애쓰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커졌습니다. 그 무렵 청년 담당 교역자님이 청년 예배와 모임에서 특히 교회의 청년들이 더 열심히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곤 하였습니다. 한창 정국이 시끄럽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그 때 저는 당회장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당면한 일들과 여러 시대적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통찰력을 어느 정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3 아카데미'를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과 바른 국가관을 가지게 되고 또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나날이 크고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다음 해에 청년봉사선교회 회장단 임원으로 봉사하도록 교역자님의 권면을 받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려고 저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1년 동안은 제 스스로 설정해 놓은 틀과 목표에 갇혀 이를 온전히 실행하지 못할 때마다 스스로 실망하고 위축되어 중도에 내려놓고 내가 더 잘 할 수 있는 봉사부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하는 중에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결심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인 것이 분명하였기에, 하나님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자격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부르신 것이라고 믿고 더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할 지혜와 힘을 주세요"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대상 28장 9절과 10절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는 네게 어떤 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라고 한 적이 없다. 너는 내가 부른 곳에서, 그곳에 가서 다만 충성하여라. 그것이 내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청년봉사선교회라는 성소의 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저를 택하여 부르셨고 저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이후에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예배가 온라인을 통해 드리는 예배로 전환되고 온전한 예배와 봉사의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청년들의 신앙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과 뜨거운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복음전도를 위해 헌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주일과 주중의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예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영혼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원인과 동기가 되어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며 은혜생활이란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권능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저는 당회장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말씀에 더욱 더 큰 은혜와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해에 감사하게도 제가 서리집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임명예배 때 당회장 목사님께서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진영 역할을 합니다. 오늘 집사로 임직되는 여러분은 위관급 장교로 임관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십자가의 정병들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교회는 이제 더 강력한 영적 전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절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택하신 뜻을 생각하며 시대적인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반기독교 세력과 이단 사이비가 준동을 하고 종교다원주의처럼 복음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킨 비진리가 한국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동성애를 커밍아웃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는 것이 더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는 오늘, 그야말로 말세지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근래들어 더욱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들으며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시는 목사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불신자들의 불쌍한 영혼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목사님의 연민의 마음을 느끼며 저의 마음도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님과 복음전도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대비하라고 하신 말씀을 유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대적 긴박성을 가지고 복음전파에 진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곤 합니다.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해 청년봉사선교회 회장직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시국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연달아 겪으며 한층 더 신앙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고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예배중심 교회중심 하나님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앞으로 교회의 기둥으로, 착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나라를 위해 크게 헌신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혀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한 부르심의 사명을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시간마다 귀한 말씀으로 저를 더 깊고 풍성한 신앙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며 영육 간에 튼튼하게 양육하여 주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믿음과 순종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베드로후서 1:10~12) 아멘.

"누가복음 16장 14절~31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16장 14절~31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268장(새찬송가 505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이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거부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아이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 유용하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좋아하는'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돈을 사랑하는' '돈을 탐내는'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고 번역되었습니다. 대체로 누구나 돈을 좋아하지만 모든 사람이 탐욕을 가지고 좋아하거나 사랑하여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돈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는 유용한 수단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재산이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재산이 자신들의 옳음 즉 의로움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자선구제 행위를 통하여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그릇된 관념과 교만한 동기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깊고 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재물을 주시지만 재물이 믿음이나 의로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선구제는 선한 것이지만 자선구제의 동기가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에서 순서와 동기를 살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재물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선한 일을 행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 갈채를 받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하였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어떻게 하였는가?"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10) 하였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세례 요한의 출현은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옮겨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천국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천국과 무관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서와 예언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몽학선생이며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가치와 의미와 권위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는 구약의 율법과 예언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대속사역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가 아주 쉽고 명확하여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8절 말씀은 남편은 사소한 일로도 아내를 버리면서, 남편에게 잔인한 대우를 받는 아내에게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불우이웃 돕기'라고 하면 대체로 경제적으로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처지가 딱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다 불우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살림이나 형편은 어렵다고 해도 마음은 넉넉하고 행복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돕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란 교회가 아니면 도울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아니면 도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이야기가 이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간결하게 기록되었지만 그 가운데 함축된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값비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문전에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있었습니다. 몸은 부스럼투성이였습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것들로 주린 배를 채우며 연명했습니다.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습니다. 어느 날 거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날 후 부자도 죽었습니다. 부자의 영혼은 불길 가운데서 고통 하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부자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니 멀리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보였습니다. 그는 소리를 질러 간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에 너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해도 가지 못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그러면 소원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 주십시오. 내 다섯 형제가 거기 있습니다.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말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들에게 가서 말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이 일컫는 불쌍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전말을 살펴보면 실상은 부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왜 가장 불쌍한 사람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혼이 굶주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관한 기록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 1:26).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하였습니다. 신약성경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하였습니다.

사람은 동작과 감각의 기관으로서의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의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은 육체의 배부른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정신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짐승들도 애정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짐승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별다른 욕구가 또 있습니다. 영적인 욕구입니다. 짐승들이 신(神)을 찾고 신을 섬긴 흔적이란 아주 없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소위 말하는 서서 걸어 다니게 된 호모 에렉투스(Homo erectus)나 지혜 있는 현생인류로 분류하는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의 전 단계로 지목하는 침팬지나 원숭이가 서식하는 곳에서 아무리 애써 살펴본다고 하여도 종교적 행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신을 섬긴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북극지방의 에스키모(Eskimo)나 아프리카의 피그미(Pygmy)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 살이 되기 전의 아이들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영혼의 갈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병이 깊어지면 식욕을 느끼지 못하듯이, 영적인 갈망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욕구를 느끼지 못하거나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마냥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둘째,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적으로 헐벗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자색으로 물들인 옷은 왕족이나 입는 옷이었습니다. 헐벗었다는 것은 가난의 대명사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부자가 항상 자색 옷과 베옷을 입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쌍한 것은 그 영혼이 벌거벗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언 이어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하니라"(마 22:3,8~13) 하였습니다. 임금이 예비한 옷을 입어야만 잔치에 참예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였고, 로마서 3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셋째,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넓은 연회석을 갖춘 아름답고 웅장한 집과 값비싼 가재도구들을 가졌습니다. 매일 잔치를 배설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썼습니다. 과연 큰 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지독한 가난뱅이였습니다.

① 부자에게는 신령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조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주 만물과 인간의 근원과 결말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몰랐습니다.

② 부자에게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요 15:11) 하였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신령한 기쁨이며 신령한 평안입니다.

③ 부자에게는 신령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임하는 성령의 권능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기록되기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은 자신의 무능과 연약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임하는 매우 역설적이고 기이한 능력입니다.

④ 부자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심령의 공허함을 값비싼 옷과 잔치로써 메우려고 하였습니다.

⑤ 부자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공수래공수거입니다. 빈손 들고 태어났다가 빈손 들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천국에 미리 보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마 6:19,20) 하였습니다. 세상적인 지식,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이 영적인 궁핍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치장하여 걸은 번드레하나 신령한 것을 갖지 못하여 속은 텅텅 비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넷째,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적인 고아였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인고도, 절해고도에 날아갈 듯한 거루고각을 짓고 생활용품을 다 갖추어 놓고 한평생 홀로 거기에 살라고 하면 그것을 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에 갈등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결핍과 고난도 있다 하더라도 어울려 사는 것을 누구나 택할 것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가 많은 비용이 들어도 날마다 잔치를 배설하여 온 집에 사람들이 붐비도록 한 이유가운데 하나는 고독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지만 영적으로는 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 14:16~18) 하였습니다. 과연 약속하신 성령강림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오셔서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다섯째,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영원한 안식처가 없었기 때문에 가장 불쌍한 이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는 영원히 거할 도성이 없습니다. 일생 동안 인생길을 이리저리 배회하거나 방황하다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늘에 있는 본향 집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히 11:9,10)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하였습니다. 불신자는 마치 외국에서 여행하는 동안에 일류 호텔에서 숙박하다가 정한 날에 본국에 돌아가니 범죄자로 체포되어 감옥에 던져지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본문의 부자는 이 세상 나그네 삶이 끝나고 죽음 저 건너편으로 가니 그를 위하여 예비된 곳이 불타는 지옥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전되는 것에 비례하여 대량살상의 전쟁위험과 자연재해의 위험이 증가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사람들에게 궁핍, 질병, 장애, 고독, 슬픔, 번민, 근심, 두려움이라는 문제가 그림자처럼 따릅니다.

그러고 보면 모두가 불우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성도들은 불우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에 처하여도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적 궁핍은 상당한 불편을 줄 따름입니다. 육신이 연약하거나 병들었어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 고통과 불편은 영영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한 신유의 은혜의 경험도 하게 되며 장차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결핍과 곤란과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선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섭리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같은 불신자들입니다. 구원 얻지 못한 이웃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깨닫게 해 주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고난과 결핍에 처한 이웃을 도와주기를 힘쓸 뿐 아니라 영적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주님 나라로 가도록 하는 일에 적극 힘쓰시기를 바랍니다.